



도마 위에 오른 ‘통신비 인하’…이번에도? 이번에는?

올 국감 ICT분야 최고 핫이슈

정부 공약…통신업계와 공방 불가피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난타전 예고

문제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안 발의가 활발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31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인하와 함께 ‘포털 규제’, ‘방송법 개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통신비 인하를 두고 어느 때 보다

격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잡음을 냈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인 정부 공약의 핵심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선택 약정할인을 상향(25%)을 골자로 한 절충안이 마련돼 9월15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 아직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통신업계에

서 난색을 표하는 ‘보편요금제’ 등 추가 정책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라 법안이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제 도입’도 쟁점 사안이다. 무엇보다 단말기 완전자급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정부, 업계 등의 이견이 많아 험난한 일정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동통신3사의 경영진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0일

코스피지수	2433.81	▲	+39.34
코스닥지수	654.59	▲	+1.77
日 닛케이 지수	2만823.51	▲	+132.80
中 상하이 종합	3382.99	▲	+8.61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94	▲	+0.05
환율 (원·달러)	1135.70	▼	-10.8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7064.59	▼	-382.74

오늘의 얼굴

글로벌뷰티 이끝 안세홍 사장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연말이나 연초에 진행하던 정기임원인사를 3개월이나 앞당겨 단행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과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임원인사를 앞당겼다. 이번에 실시한 13명의 임원인사에서는 안세홍(사진) 이니스프리 대표이사 부사장이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안세홍 신임 사장은 1961년생으로 부산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입사한 이후 아모레퍼시픽 시판사업부 상무 등을 거쳐 2014년부터 이니스프리 대표이사 부사장을 맡았다. 안 신임 사장 후임으로는 김영복 이니스프리 대표이사 상무가 승진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번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통해 글로벌 뷰티 시장을 이끄는 ‘원대한 기업’이라는 그룹 비전의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 TALK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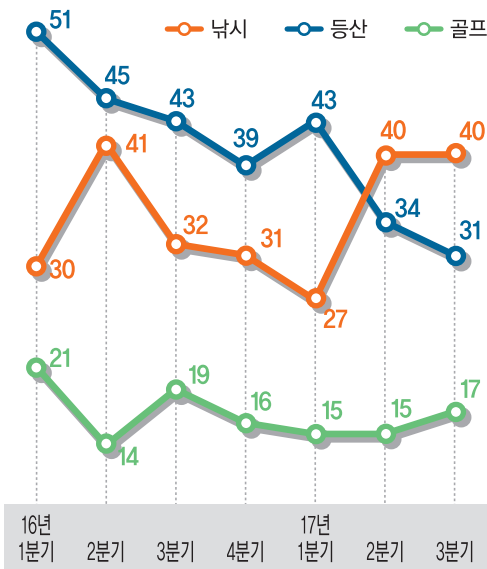
▼ “가능하면 과세 기준 리스트를 줄여볼까 생 각중”(김동연 경제부총리, 10일 김영근 성균관장을 예방한 후 한기총을 주축으로 한 종교계 일부에서 반대하는 과세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며)
▼ “원전 수출은 국내 에너지 전환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백운규 산자부 장관, 무역보험공사서 열린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 “오늘도 회의 있다, 아직 마무리 안돼”(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해 연장이 사실상 합의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데이터 경제

여행시 취미활동 낚시가 등산 제쳐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 중 취미활동, 특히 여행지에서 잠자는 숙박여행에서 선호하는 활동으로 낚시가 1위로 꼽혔다. 세종대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조사한 국내 여행 트렌드에서 그동안 등산에 이어 2위에 머물렀던 낚시는 올해 2분기부터 1위로 올라섰고, 3분기에는 격차를 크게 벌렸다. 낚시의 증가세도 있었지만, 그보다 등산을 선호하는 층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순위변동에 더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응답자의 51%가 등산을 꼽았으나, 올해 3분기에는 31%로 무려 20%포인트나 급락했다.

(3개월내 국내여행 중 취미-운동활동 계획자, 복수응답, 단위: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첫 서킷용 경주차 ‘i30 N TCR’ 데뷔전서 우승

“우린 성능으로 말한다” 현대차의 당찬 도전

첫 출전 중국 ‘TCR 인터내셔널’서 호성적
아우디·폭스바겐 골프·혼다 시빅과 경쟁
실전 데이터로 업그레이드…연말 판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첫 판매용 서킷 경주차 ‘i30 N TCR’이 실전 데뷔 무대에서 우승을 기록하는 등 성능을 입증했다.

현대자동차의 고성능차인 i30 N 기반의 경주차 ‘i30 N TCR’은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저장성 저장 인터내셔널 서킷(Zhejiang International Circuit)에서 열린 TCR 인터내셔널 시리즈에 첫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아우디 RS3 LMS, 폭스바겐 골프 GT i, 혼다 시빅 Type R 등 글로벌 제조사들의 경주차 21대가 출전했다. 현대 i30 N TCR은 2대가 출전했다.

7일 예선을 거쳐 8일 두 번에 걸쳐 치러진 결승에서 ‘i30 N TCR’은 결승1에서 우승과 12위, 결승2에서 4위와 6위를 달성하는 등 상위권의 성적을 거뒀다.

현대자동차가 처음 출전한 TCR대회에서 이렇게 글로벌 명차와 대등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터스포츠를 통해 고성능차는 물론 경주차의 주행성능과 내구성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고성능 i30N 모델 기반으로 개발, 최고 출력 330마력

이번에 출전한 ‘i30 N TCR’은 2년 연속



‘i30 N TCR’ 드라이버 ‘가브리엘 타퀴니’ 선수가 ‘TCR 인터내셔널 시리즈’ 중국경기 결승1에서 우승한 후 팀 동료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뉴트루크링 24시 내구레이스 완주에 성공한 바 있는 ‘i30 N’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양산차 기반 레이싱 대회인 TCR(Touring Car Race)를 위한 경주차다. 2.0터보 직분사 엔진을 경주용으로 튜닝해 최고출력이 약 330마력에 달하며, 6단 시퀀셜 기어(일일로 기어 변속)를 채택해 양산차 기반 경주차 클래스에서는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

현대차는 이번 대회 출전을 통해 얻은 다양

한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올해 말부터 세계 프로 레이싱팀을 대상으로 ‘i30 N TCR’을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회 출전 경험은 경주차와 고성능차 외에 일반차 개발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고성능차와 서킷용 경주차를 개발하고 경주차 대회에 꾸준히 출전해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저변을 넓히는 데 노력하고,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운전

의 즐거움을 주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CR(Touring Car Race) 대회는 인터내셔널 시리즈(International Series), 지역 시리즈(Regional Series), 국가 시리즈(National Series)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 수준의 리그인 TCR 인터내셔널 시리즈는 연간 총 10회 열리는데, 이번 중국 대회는 9번째 경기다. 원세범 기자 sereno@donga.com

보고 먹고 즐기고…가을 걷기여행 떠나요

전국 25개 코스에서 14일부터 진행

가을 정취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걷기여행 축제(사진)가 14일부터 전국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선정한 우수 걷기여행 프로그램 25개를 가을여행주간(10.21.~11.5)과 연계해 ‘2017 가을 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이하 ‘가을 걷기여행축제’)를 개최한다.

14일부터 11월5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가을 걷기여행 축제’는 14일에 강릉의 울림팍 아리바우길 9코스 여행으로 축제를 시작한다. 이어 21일에는 평창 올림픽 아리바우길 6코스, 부산 코리아둘레길-오륙도 사랑, 광주 영산강 서창들녘 역사축제 등 9개 프로그램, 28일에는 정선 올림픽 아리바우길 1코스, 대전 대청호 오백리길, 울산 가을 국향과 걷는 십리대숲, 홍천 수타사 산소길, 양평 두물머리 물레길 등 12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지막 주간인 11월4일에는 부산 금정산성 18845 순라길,



은 자녀들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평탄하고 다양한 이야기와 주변정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했다. 걷기여행과 더불어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완주자에게는 기념품도 증정한다.

문체부 금기형 관광정책국장은 “봄 축제 대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했던 먹거리와 살거리를 푸드 트럭이나 특산물 장터 운영 등으로 보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축제를 소개했다.

‘2017 가을 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걷기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두루누리(durunub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포시즌스 호텔에 미술랭 셰프들이 뜬다

25일부터 스페인 테마 팝업 레스토랑 운영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25일부터 4일간 스페인을 테마로 한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스페인 팝업 레스토랑을 위해 2명의 스페인 미술랭 1스타 셰프, 라파엘 센테노와 이반 도밍게스를 비롯해 스페인을 대표하는 요리인 타파스 마스터 2명과 파에야 마스터 1명, 그리고 소믈리에 1명 등 6명이 내한한다.

라파엘 센테노는 스페인에서 레스토랑 마루자 리몬의 오너셰프이고, 이반 도밍게스는 알보라다를 운영하고 있다. 두 사람은 팝업 레스토랑 기간 동안 스페인 풍의 공간으로 변신한 호텔 2층 ‘보칼리노’에서 매일 새로운 요리를 선보인다. 첫 날 라파엘 센테노의 6코스 요리를 시작으로 둘째 날 이반 도밍게스의 6코스, 셋째 날 라파엘 센테노와 이반 도밍게스가 포-핸즈(Four-hands)로 준비하는 6코스를 제공한다. 마지막 넷째 날에는 보칼리노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인 치료 페드로네도 참여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라파엘 센테노 셰프(왼쪽)와 이반 도밍게스 셰프. 사진제공 | 포시즌스호텔서울

리아가 어우러진 6코스의 지중해식 요리를 선보인다.

또한 보칼리노 맞은 편 외관 바에서는 스페인 소믈리에가 엄선한 스페인 와인을 타파스 마스터들의 요리들과 함께 제공한다. 지하 1층 인터내셔널 뷔페 레스토랑 더 마켓 키친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파에야 마스터가 만든 5가지 파에야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